

橘亭 尹衢의 生涯와 「橘亭遺稿」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Life of Gyl-jung Yoon Gu and *Gyuljung-yugo*

안 현 주(Ahn, Hyeonju)**

◁ 목 차 ▷

- | | |
|-----------------|--------------------|
| 1. 緒論 | 3.2 「橘亭遺稿」의 구성과 체재 |
| 2. 尹衢의 生涯 | 3.3 「橘亭遺稿」의 내용 |
| 2.1 윤구의 가계 | 4. 기타 尹衢에 관한 書誌 |
| 2.2 윤구의 생애 | 5. 結 論 |
| 3. 「橘亭遺稿」 | <참고문헌> |
| 3.1 「橘亭遺稿」의 現存本 | |

< 초 목 >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이며 학자였던 橘亭 尹衢(1495-1549)의 생애와 문집 「橘亭遺稿」에 대해 고찰하고, 타 문헌에서 堧정에 관한 書誌를 조사·정리하였다. 堧정의 문집인 堧정유고 는 필사본 3종과 목활자본(「연방집 중 권1」)이 알려져 있으며, 국역본 「堧정선생 유고 가 최근 출간되었다. 「堧정유고 에는 33편의 글이 실려 있다. 내용은 詩와 贈에서는 자연과 물건을 인생에 비유하여 수신, 덕, 절개를 중요시 하였는데, 이는 해남 윤씨가의 家學인 「小學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論에서는 漢高祖의 일관성 없는 인품과 왕이 된 후 교만해짐을 비판하고, 절의를 강조하는 堧정의 사고와 정치관을 엿볼 수 있다. 타 문헌에서 堧정이 직접 지은 글 9편, 堧정에 관한 기록 11편, 타인이 堧정에게 준 글 36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要語: 堧정, 윤구, 「堧정유고」, 「당악문헌」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AKS-2009).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treenbird@hanmail.net)

접수일: 2009년 9월 7일 최초심사일: 2009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09년 9월 16일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writings and life of Yoon Gu(or Gyuljung as pen name, 1495-1549), a civil servant and scholar in the early Joseon Period, are examined. Other literature on his works are also searched and summarized. So far, three kinds of manuscripts and one printed edition with wooden movable types of *Gyuljung-yugo* are known, and *Gyuljungsunsaeng-yugo*, its Korean translation, has been recently published. *Gyuljung-yugo* includes 33 articles. His poetry which stress self-discipline, virtue, and fidelity by comparing life to nature and matter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spirit of *Sohak*, the main instruction of Haenam Yoon's family. His essays which criticize the lack of coherence and arrogance of King Kojo in the Han Dynasty, reflect fidelity as his political creed and ideology. From searching literature, 9 pieces of Gyuljung's writings, 11 records on his life, and 36 pieces of writings dedicated to Gyuljung, but not included in *Gyuljung-yugo*, were found.

Key words: Gyuljung, Yoon Gu, *Gyuljung-yugo*, *Dangahk-munhun*

1. 緒 論

전라남도 해남읍에서 남쪽으로 2km 지점의 蓮洞마을에는 ‘綠雨堂’으로 알려진 해남 윤씨 종가집이 있다. 해남 윤씨가 貫鄉을 얻어 사족으로 기반을 잡은 것은 바로 윤효정(1476-1543)으로부터이다. 윤효정은 해남정씨와 혼인하여 연동리에 터를 잡았다.¹⁾ 이후 해남 윤씨 문중에서는 橘亭 尹衢, 孤山 尹善道, 恭齋 尹斗緒, 駱西 尹德熙에 이르기까지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인물을 배출하였다.

橘亭 尹衢(1495-1549)는 해남 윤씨 派始祖인 漁樵隱 尹孝貞의 맏아들로, 해남 윤씨 문중에서 맨 처음 중앙 관직으로 진출한 문인학자이다. 윤구는 문장과 절행으로 이름 높았으며, 광양의 崔山斗, 해남의 柳成春과 더불어 호남삼걸로 칭함을 받았고, 己卯名賢 중 한 사람이다. 주로 중종대에 정치활동을 하였고, 승정원 注書로 재직시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 사이에서 오해를 받고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영암으로 유배되었다. 문장으로 그 명성이 드높았던 굴정은 그의 詩文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나 대부분 유실되어 현재 「橘亭遺稿」가 남아 있고, 이 문집 안에는 33편의 글이 있을 뿐이다.

그 동안 해남 윤씨가의 인물과 녹우당에 관한 연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고산 윤선도의 문학과 공재 윤두서의 회화에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외에도 해남 윤씨가의 경제사적 연구와 녹우당에 소장된 고문헌에 관한 연구, 그리고 녹우당의 건축과 생활구조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해남 윤씨가의 주요인물인 尹衢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윤구의 생애와 그의 문집인 「橘亭遺稿」의 내용과 체재에 대해서 고찰하고, 다른 문헌들 중에서 尹衢와 관련된 글들을 조사하여 「굴정유고」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한다.

1) 정구복·이해준 등,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99), 15-25.

2. 尹衢의 生涯

2.1 윤구의 가계

海南 尹氏는 고려 중엽의 인물로 전해지는 尹存富를 中始祖로 하여 8대 光璜부터 전남 강진을 중심으로 下級武官職에 종사하였다. 11대 耕이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이 중 막내아들인 尹孝貞(1476-1543) 漁樵隱公派가 가장 번성하였다.²⁾

어초은 윤효정은 성리학의 대가이며 큰 학자인 錦南 崔籟가 해남에 살 때에 글을 배우기 위하여 해남으로 왔다. 두뇌가 명석하고 인품이 준수하여 해남의 갑부 鄭貴瑛이 보고 사위를 삼았다. 이런 인연으로 인하여 해남 윤씨로는 처음으로 해남에 정착하게 되었고 먼저 정귀영의 집에 사위가 된 금남 최부선생과도 종동서가 되었다. 어초은은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었고 후학의 교육에 힘썼으며 해남지방을 文鄉과 藝鄉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농업경영에도 힘을 써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였고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해 해남읍에서 멀지 않은 덕음산 아래 백연동(지금의 蓮洞)에 후손들이 영주할 터를 마련하였다.³⁾

윤효정은 衢(1495-1549), 術(1505-1591), 行(1508-1592), 復(1512-1577) 등의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들 중 衢·行·復 3형제가 문과에 급제함으로써 해남 윤씨는 양반 가문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였다.

2.2 윤구의 생애

衢는 海南 尹氏로서 字는 亨仲이고 호는 橘亭이다. 아버지 漁樵隱 尹孝貞과 어머니 草溪 鄭氏(鄭貴瑛의 女)사이에서 맏아들로 燕山君 1(1495)년에 태어났

2) 안승준, “16-18세기 海南 尹氏家門의 土地·奴婢所有實態와 經營: 海南尹兒古文書를 中心으로.” 『淸溪史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1989. 12), 157-222.

3) 朴浩培·尹在振 譯, 『橘亭先生遺稿』 跋文, 海南 尹氏 漁樵隱派 橘亭公系 宗中, 2005.

다. 中宗 5(1510)년 16세에 平澤 林氏(林畦의 女)와 혼인하여 3남을 두었다. 中宗 8(1513)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中宗 11(1516)년에 문과 을과에 장원급제하여 權知承文院副正字에 제수되었으며, 中宗 12(1517)년에 承政院 注書에 임명되었다. 우의정을 뽑으려 할 때, 임금의 명을 받아 병중인 죄의정 申用漑의 집에 들러 그의 의중을 들어서 아뢰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⁴⁾에서 오해를 받고, 이 일로 굴정은 자신의 입장을 천명한 상소를 두 번 올린다.⁵⁾ 이에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영암에 귀양을 가게 되나, 끝까지 中宗은 신임하였다.⁶⁾

中宗 13(1518)년에 弘文館副修撰 知製教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에 임명되었다. 性理大全 을 강할 만한 사람 26명을 뽑아 政院에서 아뢴 때, 그 26명 중에 굴정도 들어있다.⁷⁾ 이 때에 장남 弘中이 태어났고, 굴정보다 17년 연하인 아우 菴堂 復에게 글을 가르쳤다.

中宗 33(1538)년에 전교하기를, “전 관찰사 金正國, 전 부윤 柳仁淑과 鄭順朋, 전 府使 朴英과 申光漢, 전 舍人 李清, 전 都事 李若水, 전 校理 梁彭孫, 전 佐郎 尹衢, 전 監察 李叔幹, 전 縣監 金弘胤과 金明胤, 전 權知正字 柳敬仁 등은 모두 서용하고, 전 사인 鄭世虎, 전 현감 閔世良, 전 권지정자 李璋 등은 모두 직첩을 도로 지급하라.”⁸⁾ 하여 서용되었고 이어 굴정은 全羅道都事에 제수되었다. 中宗 36(1541)년에는 순창군수로 제수되어 재임시 관아에 지체된 송사가 없고, 德政을 베풀어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 이듬해에는 생질인 文緯世(9세)

4) 이 과정은 中宗實錄 12年 12月 25일부터 15年 5月 21일까지 20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 윤구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실록의 사관들은 기록하였으나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을 지닌 훈구세력의 거센 비판과 반발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5) 상소문은 中宗實錄 15年 3月 21日과 中宗實錄 15年 3月 27日 기사에 실려 있다.

6) 여러 신하들이 윤구에 대해 비판하고 체직시키려 하였으며, 우의정 뽑은 과정에서 생긴 끝까지 추궁하려 하였으나, 그 때마다 중중은 윤희하지 않았다(中宗實錄 14年 1月 8日, 中宗實錄 14年 1月 11日, 中宗實錄 15年 3月 25日 기사 참조).

7) 中宗實錄 34卷 13年 11月 6日(壬寅), 15冊 489쪽. 선발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孔瑞麟·金正國·申光漢·金球·閔壽元·奇遵·鄭應·權雲·具壽福·尹衢·李認·鄭順朋·閔壽千·柳墩·韓忠·尹自任·崔山斗·丁玉亨·朴世燾·黃孝·李若水·張玉·李忠健·李希閔·曹彥卿·金湜이었다.

8) 「中宗實錄」 87卷, 33年 2月 21日(乙丑), 18冊, 167쪽.

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퇴계가 곁정에게 호남에서 가르칠만한 인물을 천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문위세(14세)를 천거하여 퇴계에게 가서 공부하였다.⁹⁾ 明宗 즉위년(1545)에 홍문관 부교리로 제수되었으나,¹⁰⁾ 그 다음날 사헌부가 전날의 실수를 들어 체직할 것을 요청하여 명종이 윤허하였다.¹¹⁾ 곁정은 55세 되던 해(1549년) 정월에 어머니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건강이 악화되어 별세하였다.

곁정은 짧은 생애동안 많은 학자들과 교분을 쌓았다. 이황, 유희춘과 같이 湖堂에 들어가 賜暇讀書를 하였고, 조광조, 최산두, 박상, 김인후, 임억령, 신잠, 양팽손, 윤개,¹²⁾ 권운¹³⁾ 김정국, 심언광, 신광한, 정사룡 등과 교류하였다.

김인후는 다음과 같이 멀리 있는 친구에게 시로서 마음을 표현하였다.

운원의 곁정에게 올리다 上尹員外(衢)橘亭¹⁴⁾
금악이라 십년의 여름이라면 / 錦岳十年夏
금릉이라 칠월의 가을이었소 / 金陵七月秋
은근히 만나뵈어 기뻐는데 / 殷勤欣捧袂
길이 워낙 머니 이를 어찌리가 / 其奈路悠悠

최산두는 곁정에게 부친 시에

강 길에는 봄 찾아감이 더디니 / 江路尋春晚
그대를 생각하며 달 아래 걷는다 / 思君步月時

9) 朴浩培·尹在振 譯, 「橘亭先生遺稿」年譜.
10) 「明宗實錄」2卷, 卽位年 12月 20日(己酉), 19冊, 377쪽.
11) 「明宗實錄」2卷, 卽位年 12月 21日(庚戌), 19冊, 377쪽.
12) 1494-1566, 조선의 문신. 자는 汝沃, 호는 晦齋·西坡, 季孫의 아들. 金安國의 문인. 중종 11년(1516)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 著作·吏曹佐郎을 지내고 중종 14년(1519) 己卯土禍에 연루되었으나 漢語에 능한 탓으로 外職에 좌천되는 것으로 그쳤다. 그후 다시 등용되어 弼善·禮曹正郎을 역임, 명종 즉위(1545) 乙巳土禍 때 예조 판서로 尹元衡 등과 大尹의 제거에 가담하여 그 공으로 衛社功臣 3등이 되고, 명종 3년(1548) 知中樞府事로 鈴平君에 봉해졌으며, 1551년 우의정, 1558년 좌의정이 되었으나 이 해 李樛의 배척을 받아 면직 당했다. 이양이 제거된 후 다시 복직, 1563년 鈴平府院君에 進封되어 階將을 하사받고 領經筵事를 겸했다.
13) (1495-1519) 본관 安東. 자는 山龍 호는 霽月堂 수익(受益)의 자. 중종 11년(1516) 문과 급제. 수간, 홍문관교리 등을 지냈으며, 湖當에 오름. 향년 25세로 서울에서 歿함.
14) 「河西全集」卷5.

해마다 산 사이 골짜기엔 / 年年山間谷
한정 있는 분수에 곡진하게 따른다 / 曲隨分有涯¹⁵⁾

굴정은 낙향하여 여러 친구들과 중유한 모습이 「棠岳文獻」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굴정은 유배되었을 때에 겨우 26세였다. 고향에 돌아 온 이후로 榮進할 뜻을 버리고, 산수에 遨遊하며 吟詠自適하였다. 최산두, 유성춘, 엄억령, 신잠, 박상 등과 상유하였다. 또한 여러 선비들과 詩社의 모임을 갖고, 매화피고 눈 내리는 좋은 날들에 즈음하여 편지로 부르고, 말을 함께 하여 모이되, 미처 이르지 못 한 자에게는 浮白의 罰酒를 내리고, 혹은 시를 지어 희롱하였는데 이렇게 함이 수십년이 되었다.¹⁶⁾

세상 사람들이 新齋 최산두와 懶齋 유성춘과 함께 호남삼걸이라 일컬었다. 굴정이 지은 ‘義帝發喪論’은 중국에 유입되어 그 곳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¹⁷⁾

훈구파였던 南袞은 굴정을 글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⁸⁾ 또한 실록에 “사신은 논한다. 남곤은 문학으로 자부(自負)하여 후진 장려하기를 좋아하였다. 일찍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 海南에 이르렀다가 윤구가 지은 글을 보고는 크게 칭찬 하였으므로, 윤구의 文名이 드디어 서울과 지방에 전파되었다.”¹⁹⁾

굴정은 錦南 崔溥(1454-1504)의 학문을 이어받았다. 최부는 나주에서 출생하였는데, 17세에 해남에 사는 鄭文明의 손녀와 혼인하면서 해남에서 살게 되었다. 금남의 학문은 윤효정과 林遇利, 柳桂隣 등 해남 출신과 나주의 羅陞 등에게

15) 「己卯錄補遺」 卷上.

16) 「棠岳文獻」, 卷之一. “公被謫時年僅二十六歲而自還鄉絕意榮進遨遊山水吟詠自適日與崔柳諸公及石川靈川訥齋數先生相遊後且與諸公爲詩社會梅花辰雪朝折簡招邀聯騎相會有不及者罰以浮白或以詩相謔如是者蓋數十年.”

17) 어숙권이 지은 稱官小錄 에 “굴정이 일찍이 ‘義帝發喪論’을 지었는데 온 세상에 전해졌다.” 뒤에 참관 나세찬이 북경에 가서 「鄉試錄」을 보니 굴정이 지은 논문이 그 중에 실려 있었다. 考官이 비평하기를, “어느 곳에라도 재주 있는 사람이 나지 않으리오마는 兩廣(중국의 광둥성과 광서성)이 아니면 서쪽 지방의 科試였을 것이다.” 하였는바, 이 논문이 어느 경로를 좇아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출처: 「己卯錄補遺」 卷上).

18) 「中宗實錄」 38卷 15年 3月 21日(己酉), 15冊 635쪽.

19) 「中宗實錄」 38卷 15年 3月 22日(庚戌), 15冊 637쪽.

전수되었다. 그리하여 윤희정의 아들인 궤정(금남의 姨姪)에게 계승되고 玄孫인 고산에게까지 연맥된 것이다.²⁰⁾

궤정의 아우 尹復은 명종 중반기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주로 청요직에 정사하여 지위가 관찰사에 이르렀다. 윤복은 안동부사로 재직할 때 退溪와 서신 교환을 하였으며, 그의 아들을 퇴계의 문하에 보내 수학시키는 등 영남 사림과도 교분을 쌓았다.²¹⁾

궤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장자인 弘中(1518-1572)과 차자인 毅中(1524-1590)은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거처었다. 홍중은 을묘왜변에서 공을 세웠다. 의중은 많은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당쟁이 심한 시대에 동인에 가담하여 서인들로부터 축재혐의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²²⁾ 딸이 한 명 있었는데 李仲虎와 혼인하였다.

문인으로는 문위세(文緯世, 1534~1600)²³⁾와 李應鍾²⁴⁾이 있다. 문위세와 이응중은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이 되어 활동하였다.

궤정은 해남읍 해리에 있는 海村祠²⁵⁾에 배향되었다. 『海南三綱錄』²⁶⁾의 ‘祠宇’

20) 박준규, “湖南詩壇의 人物과 그 특색”,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391-429.
 21) 정구복, 『고문서집성-해남 윤씨편 해제』(성남: 정신문화원), 1986, 12.
 22) 이원택, “孤山 尹善道 家門의 家系와 家學”,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전라남도·문헌정보연구소, 2003, 18.
 23) 자는 叔章. 호는 楓麓. 1567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박광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다. 1595년 용담현령이 되고, 정유난 때에 읍민을 모아 一軍을 창설하여 파주목사에 특진시켰으나 부임하지 못 하고 신병으로 졸하였다. 장흥의 강성서원에 배향되었다(『호남학 자료총서·호남인물 기초자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6. 참조). 문위세의 『楓麓文先生實記』에는 杏堂公行狀이 들어 있다. 궤정의 문인인데, 정작 궤정의 행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궤정의 동생인 행당의 행장을 문위세가 지은 것이다. 이를 유추하면 궤정의 행장도 지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도 유실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24) 字는 和叔이고, 호는 四梅堂이며, 본관은 全州, 裴度公天祐의 6세손이며, 尹橋亭의 문인. 임란을 당하자 의병활동을 하였다(『李朝忠臣』 참조).
 25) 해촌사는 본래 효종 3년(1652) 임억령 선생 단독 사우로 건립하였으나 그 후 숙종 15년(1689) 해남 유림의 발원으로 최부, 유희춘을 추배하여 오다가 1721년 윤구와 윤선도를 추배하여 5현사가 되었다. 1868년 조정의 명으로 훼손되었다가 1901년 설단, 재향하였으며, 박백응은 1922년에 추배되었다. 忠義, 經術, 文章이 뛰어난 해남의 明賢을 배향하고 있으며, 해남읍 구교리에 있던 해촌가는 현재 해리 금강골로 옮겨졌다.
 26) 『海南三綱錄』은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의 체제를 모방하여 해남의 충신,

의 五賢祠諸實錄(최부, 윤구, 유희춘, 임억령, 윤선도)에 굴정의 기록이 들어 있고, 「己卯錄」²⁷⁾에도 ‘尹衢傳’이 있다.

3. 「橘亭遺稿」

3.1 「橘亭遺稿」의 現存本

윤구의 유고집인 「橘亭遺稿」는 현재 필사본, 목활자본, 국역양장본이 현존한다. 필사본은 서명이 橘亭遺稿이고, 목활자본은 합본되어 있어서 서명이 聯芳集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에 간행된 국역본은 「橘亭先生遺稿」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필사본

해남 녹우당에는 橘亭遺稿 필사본 3종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굴정유고(가)²⁸⁾
橘亭遺稿 / . - 筆寫本 - [朝鮮後期], 1冊, 34.2 × 21.7cm.
卷首: 鶯鳩笑大鵬.

필사본 3종 중 가장 큰 책이며, 붉은 색으로 글자를 교정하고 대조한 자취가 전체적으로 보인다. 詩 2편(登泰山小天下, 送蔡元定謫道州) 賦 10편(鶯鳩笑大

효자, 열녀들의 행적을 모아 편찬하였다. 1895년(고종22) 해남 향교에서 간행하였는데, 굴정에 관한 기록은 卷之一(乾)의 ‘祠宇’에 들어 있다(장춘석, “綠雨堂 所藏 「海南三綱錄」의 研究,”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제1책, 전라남도·문헌정보연구소, 160. 참조).

27) 金埴, 「己卯錄」.

28) 필사본 3종에 편의상 (가), (나), (다)로 명명하였다.

鵬賦, 悲絲賦, 承露盤賦 黃耳賦, 天河賦, 杯羹賦, 名賦, 硯賦, 九方臯相馬賦, 砥柱賦), 論 3편(大禹戮防風論, 漢高祖爲義帝發喪論, 子貢欲去告朔之餼羊論), 策 2편(問 錢穀 推刷 籍田, 問禮讓廉恥大習策), 箴 1편(酒箴), 頌 2편(平南蠻頌, 過魯祀孔子頌), 雜著 1편(濟州明倫堂重修記)등 총 21편이 수록되어 있다. 목활자본 「橘亭遺稿」에 비하여 시 2편, 논 3편, 묘갈명 2편 잡저 7편이 덜 실려있다. 그에 반하여 策은 1편이 더 있는데, '禮讓廉恥大習策'은 목활자본에 수록되지 않은 글이다.

굴정유고(나)

橘亭遺稿 / - 筆寫本 - [1757 以前], 1冊, 28 × 17.5cm.

卷首: 橘亭遺稿 詩五言古詩 登泰山小天下.

藏書印: 尹悰之印

尹悰(1705-1757)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필사시기를 1757년 이전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서체가 해정하며 마지막 글 1편을 제외하고 한 명의 필사자가 모두 썼다. 詩 1편(登泰山小天下詩), 賦 10편(鴛鴦笑大鵬賦, 悲絲賦, 承露盤賦 黃耳賦, 天河賦, 杯羹賦, 名賦, 硯賦, 九方臯相馬賦, 砥柱賦), 論 7편(四皓羽翼太子論, 僞遊雲夢論, 大禹戮防風論, 漢高祖爲義帝發喪論, 子貢欲去告朔之餼羊論, 斬丁公論, 五王不殺武三思論), 策 1편(問 錢穀 推刷 籍田) 箴 1편(酒箴), 墓碣銘 2편(李公淑人安氏雙墓碣銘, 振威縣令林公碑銘), 頌 2편(平南蠻頌, 過魯祀孔子頌) 雜著 7편(濟州明倫堂重修記 又一本, 橘亭記, 畫蘭志, 祭金叅判正國文, 題西行錄後, 梅花春園夜飲序, 歌謠)등 총 31편으로, 필사본 3종 중 가장 많은 글을 수록하고 있으며, 목활자본 橘亭遺稿 에 가장 근접한 책이다. 그러나 論이 7편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五王不殺武三思論'은 윤행의 문집인 「拙齋遺稿」에 들어 있는 글이다.

굴정유고(다)

橘亭遺稿 / - 筆寫本 - [朝鮮後期], 1冊, 23.3 × 20.4cm.

卷首題: 橘亭遺稿

卷首: 四皓羽翼太子論

필사시기를 전혀 알 수 없고, 계선이 그려진 종이에 필사를 하고 있다. 14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목활자본 「橘亭遺稿」와 비교해보면 10편(四皓羽翼太子論, 僞遊雲夢論, 大禹戮防風論, 漢高祖爲義帝發喪論, 子貢欲去告朔之餼羊論, 斬丁公論, 問 錢穀 推刷 籍田, 平南蠻頌, 過魯祀孔子頌, 酒箴)은 같고, 4편(五王不殺武三思論, 裴庾論, 郭子儀單騎見虜論, 反風起禾頌)은 목활자본 「橘亭遺稿」에 없는 글이다. 이 4편은 굴정의 글이 아니고, 그 중 ‘五王不殺武三思論’은 굴정의 아우인 尹行이 지은 글이다. 이 필사본에는 詩, 賦, 記, 墓碣銘 등은 들어 있지 않다. 산문만을 모아서 필사하여 책으로 엮은 것으로 보인다.

3.1.2 목활자본

연방집²⁹⁾

聯芳集/ 尹觀夏(朝鮮) 編. / - 木活字本. - 1922序, 2冊, 28.5 × 19.2 cm.

四周單邊, 半郭 20.4 × 15.1 cm, 有界,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表題(v.1): 橘亭遺稿.

表題(v.2): 海濱遺稿.

序: 壬戌(1922)...十三世宗孫[尹]觀夏謹序.

「聯芳集」은 굴정의 13세손인 尹觀夏가 편찬한, 윤구의 형제들의 문집을 합철하여 목활자로 간행한 것이다. 2권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에는 尹衢의 「橘亭遺稿」가 수록되어 있고, 2권에는 「海濱遺稿」(尹衡), 「拙齋遺稿」(尹行), 「杏堂遺稿」(尹復)가 차례로 들어 있고, 「聯芳集」이 마지막으로 실려 있는데, 이 맨 마지막에 들어 있는 「聯芳集」에는 형제들의 시이긴 하지만 누구의 저작인지 모르는 시가 12편 수록되어 있다. 목활자본 「橘亭遺稿」에는 굴정의 글이 33편 들어 있고, 行狀이나 年譜가 들어 있지 않다.

현재 녹우당에는 권1만 있으며,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저자를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29)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OC4C1연41○ v.1-v.2.

3.1.3 국역본

서명은 「橘亭先生遺稿」이고, 朴浩培와 尹在振이 國譯하였으며 尹斗玆이 編輯하였다. 2005년에 海南 尹氏 漁樵隱派 橘亭公孫 宗中에서 주관하여 간행하였다. 목활자본과 비교할 때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국역본에서는 橘亭公 行狀, 神道碑銘, 年譜를 추가하였고, 시의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 목활자본 「聯芳集」에 들어 있던 詩에 그동안 새로 발견한 시들을 추가하여 「橘亭遺稿」 뒤에 수록하였다.

3.2 「橘亭遺稿」의 구성과 체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橘亭遺稿」는 필사본 3종과 목활자본 「聯芳集」 중 1권, 그리고 2005년에 국역된 「橘亭先生遺稿」 등이 현존한다. 수록내용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간행된 2005년 국역본이 가장 많은 글을 수록하고 있다.

1922년 윤구의 13세손인 윤관하는 어초은 윤희정의 네 아들의 문집인 橘亭遺稿, 「海濱遺稿」, 「拙齋遺稿」, 「杏堂遺稿」을 모아 목활자본 「聯芳集」을 간행하였다. 이 중 「橘亭遺稿」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본다면, 앞에서 언급하였던 필사본 3종 중(다)본은 필사시기를 짐작할 수 없으나 그 내용의 분량이 작고, 글정의 글이 아닌 것이 4편이나 수록되어 있어서, 목활자본 「橘亭遺稿」을 간행할 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가)와 (나)는 목활자본 「橘亭遺稿」을 간행할 때에 稿本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가)본에는 붉은 글씨로 대조한 흔적과 誤字를 교정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 있고, (나)본은 필사본 3종 중 그 내용이 목활자본 「橘亭遺稿」과 가장 근접해있음을 알 수 있다.

목활자본 「橘亭遺稿」는 1책으로, 詩 4편, 賦 10편, 論 6편, 策 1편 箴 1편, 墓碣銘 2편, 頌 2편, 雜著 7편과 「연방집」소속(누구의 저작인지 분명하지 않은) 詩 12편이 수록되어 있다. 2005년 국역본은 목활자본에 행장, 신도비명, 연보, 「연방집」소속 시 3편이 더 추가되었다. <표 1>에 목활자본과 국역본의 목차를 비교하였다.

<표 1>. 목활자본 「橘亭遺稿」과 국역본 「橘亭先生遺稿」의 목차 비교

목활자본 「橘亭遺稿」의 목차		국역본 「橘亭先生遺稿」의 목차	
登泰山小天下詩		序文	
送蔡元定謫道州詩		橘亭公 行狀	
失題詩		神道碑銘	
次韻訥齋詩贈繼師詩		聯芳集序	
鴛鴦笑大鵬賦		詩	登泰山小天下詩
悲絲賦			送蔡元定謫道州詩
承露盤賦			失題詩
黃耳賦			次韻訥齋詩贈繼師詩
天河賦		賦	鴛鴦笑大鵬賦
杯羹賦			悲絲賦
名賦			承露盤賦
硯賦			黃耳賦
九方臯相馬賦			天河賦
砥柱賦			杯羹賦
四皓羽翼太子論			名賦
僞遊雲夢論			硯賦
大禹戮防風論			九方臯相馬賦
漢高祖爲義帝發喪論			砥柱賦
子貢欲去告朔之餼羊論			論
斬丁公論		僞遊雲夢論	
策 錢穀 推刷 籍田		大禹戮防風論	
酒箴		漢高祖爲義帝發喪論	
墓碣銘		子貢欲去告朔之餼羊論	
平南蠻頌		斬丁公論	
過魯祀孔子頌		策	問 錢穀 推刷 籍田
濟州明倫堂重修記 又一本		箴	酒箴
橘亭記		墓碣銘	淑人安氏雙墓碣銘
畫蘭志			振威縣令林公碑銘
祭金叅判正國文		頌	平南蠻頌
題西行錄後			過魯祀孔子頌
梅花春園夜飲序		雜著	濟州明倫堂重修記 又一本
歌謠			橘亭記
聯芳	忍賦		畫蘭志
	沆瀣賦		祭金叅判正國文

集	黔之驢賦	聯芳集	題西行錄後
	掩骼賦		梅花春園夜飲序
	吊裴烈婦文賦		歌謠
	祝網賦		忍賦
	次感士不遇賦		關雎
	大瓠賦		沆瀣賦
	南征賦		陟岵賦
	仁者如射賦		黔之驢賦
	牛山賦		掩骼賦
	潤德泉賦		吊裴烈婦文賦
			祝網賦
			次感士不遇賦
			大瓠賦
			南征賦
			仁者如射賦
			誤中副車賦
			牛山賦
			潤德泉賦
		年譜	
		跋文	

3.3 「橘亭遺稿」의 내용

굴정은 문장가로 명성이 드높았던 것에 비해 안타깝게도 남아 있는 글이 드문 편이다. 「橘亭遺稿」에 수록된 글은 33편으로서, 문체의 종류는 詩, 賦, 論, 策, 箴, 墓碣銘, 頌, 記, 雜著 등이 있다.

韻文인 詩와 賦 14편에서는 泰山, 大鵬, 悲絲, 黃耳, 은하수, 벼루(硯), 말, 砥柱山 등을 인용하여, 자연과 인생을 빗대어 자신의 생각을 잘 묘사하였다. 鶯鳩笑大鵬賦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비판하며, 대붕의 마음 품기를 소망하였고, 悲絲賦에서는 실오라기의 변화를 인생에 비유하며, 자신의 본바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고, 承露盤賦에서는 心田을 닦으려는 욕심보다 장수하려는 소졸한 마음을 비판하였다. 天河賦에서는 은하수를 보며 번뇌를 씻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원하였으며, 名賦에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實이 主이고, 名은 賓임을 주장하였고, 硯膊에서는 벼루의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칭송하였다. 九方臯 相馬賦에서는 용모로 사람을 논하지 않고 덕의 밝음과 어두움으로 사람을 논한다고 하였고, 砥柱賦에서는 높은 砥柱山에 대한 단상을 인생에 비유하여 도를 굳게 하고 절개를 굳게 가져서 威武와 禍福에 굴하지 않고 늠름함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높음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부 10편 중 8편에서 윤구의 가치관과 수신을 엿 볼 수 있다. 堯정은 마음발을 가꾸는데 힘쓰고, 德과 道, 절개를 중요시 여겼다. 이는 그의 家學의 전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海南 尹씨가는 대대로 집안의 가학으로 「小學」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당시의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한 조선사회에서 이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이들의 「소학」중시는 사림과의 학맥 속에서 독특한 가학을 이루어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尹효정의 소학정신은 趙光祖가 주장하는 유교적인 이상정치인 民本爲民的 實踐思想과 동질성을 갖는다.³⁰⁾ 堯정의 부친인 尹효정은 「소학」정신에 입각하여 생활에서 실천하였다. 尹효정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여 옥에 갇히는 무리들이 많았을 때에 이를 가련하게 여겨 미곡을 내어 官府에 대신 바쳐 이들을 풀어주었는데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하였다고 한다.³¹⁾

堯정은 6편의 論을 남겼다. 문체 중 「論」은 倫으로, 여러 사람들의 말을 하나로 합해 조리를 세우고 衆理를 찾는 것이라 하였다.³²⁾ 6편의 論 중 四皓羽翼太子論, 僞遊雲夢論, 漢高祖爲義帝發喪論, 斬丁公論에서 漢高帝 유방에 대해 비판하였다. 四皓羽翼太子論에서는 태자를 돕기 위해 四皓가 급히 달려와서 도왔다는 것으로 軍자의 의리에 대해 피력한 글이고, 僞遊雲夢論에서는 漢의 高帝가 훌륭한 덕을 잃고, 진평의 간사한 책모에 빠져서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을 비판하였고, 漢高祖爲義帝發喪論에서는 유방이 의제를 발상한 후 그 마음이 성실하지 않고,

30) 정윤섭, “孤山 尹善道 家門의 實學의 性格,” 海南 녹우당의 고문헌 第1冊, 진라남도·문헌정보연구소, 34. 堯정의 부친은 최부의 문인이었으며, 金安國과 친한 벗이었다. 최부는 金宗直의 문인이며, 金安國은 金宏弼의 문인이다. 조광조 또한 金秉필의 문인이다. 이들은 사림과 맥을 같이 하며 「小學」을 중요시하였다.

31) 「海南 尹氏族譜 漁樵隱公派世譜」 卷 1.

32) 劉協, 「文心雕龍」.

교만하여짐을 토로하고 의제를 위해 발상함도 순진한 본심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斬丁公論에서는 丁公이 漢에 덕을 베풀었는데 그를 죽인 高帝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4편에서 한고조의 일관성 없는 인품과 왕이 된 후 교만해짐을 비판하고, 절의를 강조하는 굴정의 사고와 정치관을 엿볼 수 있다.

굴정은 또한 酒箴을 지었는데, 술의 폐해를 서술하며, 술을 마실 때에는 주례를 지키되 되도록 마시지 말 것을 권고하는 글이다. 問 錢穀 推刷 籍田에서는 法이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현재 이 제도에 대한 폐단을 서술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자의 말씀을 들어 덕과 예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굴정의 글 곳곳에서 공자의 가르침(過魯祀孔子頌, 問 錢穀 推刷 籍田)을 인용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와 성군을 기다리는 마음(失題詩)을 토로한다. <표 2>에서는 「橘亭遺稿」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다.

<표 2> 「橘亭遺稿」의 내용요약

제 목	내용요약
登泰山小天下詩	태산을 인용하여 자연의 위대함과 인생을 비교한 글
送蔡元定謫道州詩	蔡元定이 道州로 귀양살이 갈 때 이별을 아쉬워하며 보내는 글
失題詩	도덕과 학문으로 修身하며, 성군의 태평성대를 그리워하고 또한 성군 나실 때를 기다림
次韻訥齋詩贈繼師詩	訥齋의 시에 차운하여 쓴 글. 나그네가 禪僧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진리를 찾아 다시 길을 떠남을 그린 시.
鴛鴦笑大鵬賦	소인배들의 특성과 이기적인 마음을 비판하며, 大鵬의 마음 품기를 소망하는 글
悲絲賦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오라기의 변화를 인생살이에 비유하여 본바탕을 지키지 못함을 비판하며, 자신은 본바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지은 글
承露盤賦	한무제의 '承露盤'을 인용하여, 心田을 닦으려는 욕심보다 장수하려는 소졸한 마음을 비판한 글
黃耳賦	진나라 육기가 기르던 黃耳(개이름)을 인용하여, 고향 소식을 그리워하며 지은 賦
天河賦	은하수를 보며, 이 혼탁한 세상에서 번뇌를 씻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원하는 賦
杯羹賦	효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진술하며, 한조조 유방이 의제를 위해 발상한 것으로 寬仁을 얻었다하나 실른 그렇지 않다고 한고조를 비판한 글.

名賦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쓴 글로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實이 主이고, 名은 賓임을 주장한다.
硯賦	벼루의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칭송한 賦
九方臯相馬賦	좋은 말 고르는 것을 인용하여, 용모로 사람을 논하지 않고 덕의 밝음과 어두움으로 사람을 논한다는 뜻을 서술한 글
砥柱賦	높은 砥柱山에 대한 단상을 인생에 비유하여 사람들은 서로 높음을 다투지만, 도를 굳게 하고 절개를 굳게 가져서 威武와 禍福에 굴하지 않고 늠름함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높음이라는 것을 주장한 글
四皓羽翼太子論	四皓가 한고제의 태자를 도운 論. 四皓가 가진 밝은 지혜와 원대한 계책을 칭송하고, 선비의 나이감과 퇴거함이 한 시대와 관계있음을 밝히며, 세속에 영합한 자들에게 경계함.
僞遊雲夢論	漢의 高帝가 훌륭한 덕을 잃고, 진평의 간사한 책모에 빠져서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을 논한 글
大禹戮防風論	하나라 우임금께서 산하 군신들 전원을 회개산에서 초치하여 모였는데 防風이 늦게 오니 죽인 고사를 들어 논한 글. 우임금은 순임금의 뒤를 이은 성인인데, 방풍을 죽인 것은 한 사람을 얽한 벌을 내려 후세에 천만사람에게 규범이 되어 깨우치게 한다면 이러한 얽한 형벌은 장차 이로부터 없을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순임금의 유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漢高祖爲義帝發喪論	초나라 項羽는 포악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 하여 義帝를 죽여 시체를 강물에 버려두자, 한나라 劉邦은 의제를 위하여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모셨다. 그러나 유방이 의제를 발상한 후 그 마음이 성실하지 않고, 교만하여짐을 토로하고 의제를 위해 발상함도 순진한 본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제를 비판함.
子貢欲去告朔之 餼羊論	子貢이 고을원님으로 나갈 때에 朔에 쓰이는 희생양을 없애려고 한 일에 대해 논한 글. 굴정은 자공의 생각을 지지하는데 이는 세속 사람들이 걸치레 하는 文만을 주로 힘쓰고, 본바탕 質을 경시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것에 동감함.
斬丁公論	丁公이 漢에 덕을 베풀었는데 그를 죽인 高帝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글
問 錢穀 推刷 籍田	法은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錢穀, 推刷, 籍田제도의 현 폐단을 서술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자의 말씀을 들어 덕과 예로 다스릴 것을 주장한 글.
酒箴	술의 폐해를 서술하며, 술을 마실 때에는 주례를 지키며 되도록 마시지 말 것을 권고하는 글
通訓大夫掌樂院正知製教李公淑人安氏雙墓碣銘	通訓大夫掌樂院正知製教였던 李達善과 그의 부인인 安氏의 묘갈명
振威縣令林公碑銘	振威縣令이었던 林百根과 그 부인 南陽 房氏의 묘갈명
平南蠻頌	「삼국지」의 '적벽대전'처럼, 전조에 남쪽의 오랑캐들을 안장군과 황장군이 평정함을 칭송한 글

過魯祀孔子頌	魯나라의 예의 있음과 그 예의의 근원이 孔子에게 있음을 칭송한 글
濟州明倫堂重修記	심연원이 제주목사가 되어 스러진 명륜당을 새롭게 보수하여 학문의 장소를 마련한 것을 치하하며, 학문의 중요성을 설파한 글
橘亭記	백면동에 橘亭을 짓고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 쓴 글
畫蘭志	성종께서 그린 난 한폭과 그 그림의 뒷면에 붙인 六言二絶의 시를 보고 그 느낌을 쓴 글
祭金叅判正國文	叅判 金正國의 祭文
題西行錄後	西行錄 후에 함께 갔던 이들의 안부를 들으며 슬퍼하고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지은 글
梅花春園夜飲序	봄밤에 윤개(여옥)의 정원에서, 절친한 벗인 권운(산룡)과 함께 대화를 감상하며 술자리를 베풀고 시를 읊으면서 정담을 나누는 글
歌謠	관찰사 金相國을 칭송한 글. 지방 풍속을 살피고 민요를 채집하라는 명을 받고 내려와 민심을 살피고 교화를 펴며 인재 양성을 쉽 없이 한 것을 칭송함.
忍賦(이하 「연방집」에 들어 있는 시들)	참음(忍)에 관한 부. 막음(防)이 없는 川은 무너지기 쉽고 참음이 없는 뜻은 내치기(放)쉬우니 내치기를 그치지 아니함은 가장 어리석은 뿐이어서 忍으로 경계를 삼고자 하여 지은 글(장자 제물론의 인용이 많음)
關雎	「詩經」의 '關雎'편을 인용하여 남녀간의 아름다운 덕을 칭송하고, 古代의 이 덕을 지금 이어받지 못 함을 안타까워하며, 「시경」을 읽어 그 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글
沈瀛賦	沈瀛(북방의 한밤중의 기운)에 대하여 서술한 글. 저자는 도의로서 짝을 삼아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향혜의 순수함을 동경하며 사사로움을 버리겠다고 다짐함.
陟帖賦	「詩經」, 「魏風」의 陟帖를 인용하여 마음의 근심과 부모님을 생각하며 지은 부
黔之驢賦	유종원의 「三戒」 중 '黔驢之技'를 인용하여, 내면을 닦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서 외형만을 꾸미고자하는 세태를 경계하며 지은 부.
掩骼賦	「禮記」의 '月令'에 나오는 掩骼埋胔를 인용하여, 임금의 은택과 덕이 널리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은 부
吊裴烈婦文賦	陶隱 이송인의 '裴烈婦傳'을 읽고 전하여지지 않음을 애석하며, 裴烈婦의 본바탕의 아름다움과 절개를 칭송하는 글
祝綱賦	중국 고대 탕왕의 고사인 '祝綱'을 인용하여, 고대 임금의 어진 덕을 그리워하며, 현재 세상에는 그와 다르게 새 잡는 그물, 짐승잡는 그물이 덮혀 있어 시원스럽게 그물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한을 표현한 글
次感士不遇賦	도연명의 '士不遇賦'를 읽고 이에 차운한 부로서, 선비가 세상을 구제함에 뜻을 두고도 그 때를 만나지 못하여 泯沒에 이르는 자가 많았음에 대해 느끼는 바를 지음.
大瓠賦	「莊子」(內篇 逍遙遊)에 나오는 혜자의 일화를 인용하여 지은 賦로서, 큰 그릇이 알맞게 쓰일 곳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또한 큰 그릇이 있다면 유용하게 쓰였다는 마음을 드러냄

南征賦	벼슬을 하려고 서울에 왔으나 천거해 주는 이 없어서 남쪽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느낀 바를 읊은 賦
仁者如射賦	「孟子」(公孫丑篇 上)에 나오는 '仁者如射'를 인용하여 지은 賦. 仁을 행하는 일이 마치 활쏘기를 하는 것과 같음을 비유하면서 군자의 행할 바와 학문하는 태도를 권하는 글.
誤中副車賦	張良의 '誤中副車'에 관하여 쓴 賦. 張良의 충성심과 절의를 칭송함.
牛山賦	「孟子」(告子篇 上)의 '牛山之木'을 인용하여 지은 賦. 성선설을 설파하며, 처음부터 기질과 습관의 내부를 다스리면 마침내 사물에 유혹되는 바깥을 짚어 없앨 수 있다 주장.
潤德泉賦	난세의 다스림이 곧 사람에게 있으며, 덕화를 널리 베풀면 만물은 생육되고, 천지도 제자리에 있게 된다는 그의 주장을 潤德泉을 인용하여 지은 賦

4. 기타 尹衢에 관한 書誌

호남삼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굴정은 그 문장에 대한 명성이 멀리 중국에까지 알려질만큼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집인 「굴정유고」에는 33편의 글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에 여러 문헌에서 굴정이 쓴 글, 굴정에 관한 글, 타인이 굴정에 게 준 글 등을 조사하였다.

1) 「棠岳文獻」

「海南 尹氏文獻」이라고도 한다. 윤영표가 엮은 것으로 필사본이며, 18卷 6册 (册1 - 棠岳文獻 卷1~卷3, 册2 - 棠岳文獻 卷4~卷6, 册3 - 棠岳文獻 卷7~卷9, 册4 - 棠岳文獻 卷10~卷12, 册5 - 棠岳文獻 卷13~卷15, 册6 - 棠岳文獻 卷16~卷18)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국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복사본)에 소장되어 있다.

해남 윤씨가 문헌을 모아놓은 책으로, 윤희정으로부터 윤용에 이르기까지 역대인물들의 행장, 제문, 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굴정에 관한 기록으로는

- 「學圃集」에 들어 있는 詩, ‘次韻學圃’
- 橘亭公에 관한 기록

- 安鴻의 「己卯錄」중 굴정에 관한 기록
- 「湖堂錄」중 굴정에 관한 기록
- 「野史略」중 굴정에 관한 기록
- 「撫松小記」중 굴정에 관한 기록
- 「次韻訥齋詩贈繼師」詩
- 굴정이 늘재의 행장을 지었다는 기록
- 굴정이 퇴계, 미암과 함께 호당에 被選된 기록과 함께 附錄으로
- 「新齋集」에 들어 있는 詩, 「寄尹橘亭」
- 「思齋集」에 들어 있는 詩, 「次韻酬尹亨仲」
- 「十清燕行錄」에 들어 있는 詩,
「黃州客館夜飲聯句」
「稅軍亭夜飲聯句」
「劔水驛次韻尹亨仲話別崔山斗詩」
「與尹亨仲次韻主官設筵餞行詩」
「連日坐車錄呈亨仲耆伯」
「過孤竹古城次韻亨仲詩」
「漁陽驛次韻亨仲詩」
「玉河館次韻亨仲夜飲詩」二首
「文丞相廟次韻亨仲詩」
- 「湖陰集」에 들어 있는 시
「藏春堂(在泰仁宋世珠堂名)夜話贈尹亨仲」
- 「靈川集」에 들어 있는 시
「送尹亨仲赴全羅幕(公爲都事時)」
「十七夜遇橘亭飲酒有感用貞耀先生韻書」
「是夜橘亭出示崔景仰所贈一絕次韻」
「戲次橘亭香奩詩韻」
「書懷奉寄橘亭」

‘仲春與亨仲子潤會奉訥齋先生遊寶林寺西溪’

‘頃承訥齋先生和韻不勝欽歎仍綴荒句送尹橘亭’

‘橘亭惠豆詩以謝之’

- 白蓮洞憶橘亭先生詩 并序(閔與顏)
- 孝宗辛卯八月南平鄉校通文
- 海南鄉校通文
- 上尹員外(衢)橘亭(金麟厚 詩)
- 送亨仲赴京(奇遵 詩)

등이 있다.³³⁾

2) 「棠岳有事」

해남 윤씨 어초은공파의 주요인물들의 행적과 그들이 편찬한 글을 수록한 책으로서 필사본이며, 현재 녹우당에 소장되어 있다. 묘갈명, 신도비문, 시문 등 모두 20여편이 들어 있는데, 이 중에 윤구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 ‘朴訥齋行狀’(윤구 撰)
- ‘振威縣令林公碑銘’(윤구 撰)³⁴⁾
- ‘撫松小說’은 윤구, 윤복, 윤의중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3) 「漁樵隱遺稿」

윤효정과 그의 아들인 윤구와 윤복이 쓴 글을 모아둔 책으로 필사본 1책이다. 현재 녹우당에 소장되어 있다.

- 謁正의 시 題閑亭 2수
- 次訥齋韻贈繼師 2수³⁵⁾

가 들어 있다.

33) 「堂岳文獻」卷1, ‘橘亭公’, 11-47.

34) 「橘亭遺稿」에 들어 있음.

35) 「橘亭遺稿」에 들어 있음.

4) 「海南三綱錄」의 ‘祠宇’의 五賢祠諸實錄(최부, 유희춘, 임억령, 윤구, 윤선도)에 竝정에 관한 글이 들어 있음

5) 「己卯錄補遺」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화를 당한 사람들의 사적을 엮은 책이며, 필사본으로 2권 1책으로 되어 있다. <기묘록(己卯錄)>의 보유로 안로(安瑠)가 편찬하였다. ‘尹衢傳’이 들어 있다.

6) 永慕帖

영모첩은 해남 윤씨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 온 書簡, 詩札, 詩稿, 文藁 등을 모은 첩이다. 윤두서의 7대조 윤효정부부터 부친 윤이후까지 약 200년의 필적이 실려 있다. 이 영모첩의 첫 번째 책(元)에 다음과 같은 윤구의 서간 5통이 들어 있다.

- “禮弟 諱奉 癸亥三月十日 父(手決)”(1563)
- “杪夏十一日 兄仲”
- “舍弟 奉書 中春初五 兄仲”
- “禮弟 答書 尹典籍”
- 日字 없는 서간 1통

7) 「河西全集」

하서 김인후의 문집인 「河西全集」에도 竝정에 관한 시 3종이 수록되어 있다.

- 山人大遠將石川橋亭眉巖諸作求和
- 山人守安以慎吉原(喜南)之書來謁軸中有橋亭靈川宋江夢窩及李上舍季真之詩 宋江二詩一自道一道僧仍效之
- 上尹員外(衢)橋亭³⁶⁾

36) 「堂岳文獻」에도 들어 있음.

8) 「訥齋集」³⁷⁾

눌재 박상의 문집인 「訥齋集」에 시 3수가 수록되어 있다.

- 和尹亨仲求題申元亮墨竹韻(卷第一)
- 和尹亨仲(2수)(續集卷第一)

9) 「企齋集」

조선 전기의 문신 申光漢의 遺稿集인 「企齋集」에 시 1수가 수록되어 있다.

- 朝正使閔耆伯尹亨仲勤求別語强把病筆兼呈正使金公(關東錄, 卷之五)

10) 「思齋集」

조선 전기의 학자·문신인 金正國(1485-1541)의 문집인 思齋集 에 시 2수가 실려있다.

- 書贈尹亨仲(詩, 卷之二)
- 留別尹亨仲(詩, 卷之二)

11) 「漁村集」

조선 전기의 문신 沈彥光(1487- ?)의 시문집인 漁村集 에도 시 3수가 실려있다.

- 次尹亨仲 衢韻(詩, 卷之一)
- 送尹亨仲 衢, 閔耆伯赴燕京(詩, 卷之一)
- 送尹亨仲 衢, 閔耆伯赴燕京(詩, 卷之二)

12) 「湖陰雜稿」

조선 전기의 문신 鄭士龍(1491~1570)의 시문집인 「湖陰雜稿」에도 세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 藏春堂夜話贈尹亨仲(歲春泰仁宋世球堂名)(省墓錄, 卷之二)³⁸⁾

37) 「눌재집」이하 「기재집」 「사재집」 「어촌집」 「호음잡고」, 「석천집」은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minchu.or.kr>>에서 검색하였다(2009년 8월 10-21일 검색).

38) 「堂岳文獻」에도 들어 있음.

- 送尹亨仲赴古阜(樞府日錄, 卷之四)
- 哭尹亨仲 衢(南宮日錄, 卷之四)

13) 「石川集」

굴정의 절친한 벗 임억령의 문집인 「石川集」에 挽詞가 실려있다.

- 挽尹亨仲 衢(五言四韻, 卷之三)

이상으로 13종의 문헌에서 굴정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이 중에는 이미 「굴정유고」에 수록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수록되지 못한 글이다. 유고집에 수록되지 못한 글들은 크게 굴정이 지은 것, 굴정에 관한 기록, 타인이 굴정에게 준 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굴정이 직접 지은 글로는 ‘次韻學圃’(「당악문헌」, 「학포집」), ‘橘亭惠豆詩以謝之’(「영천집」, 「당악문헌」), ‘朴訥齋行狀’(「당악유사」), ‘題閑亭’ 2수(「어초은유고」), 간찰 5편(「영모첩」) 등 9편이 있고, 굴정에 관한 기록은 「당악문헌」에서 9편, 「해남삼강록」에서 1편, 「기묘록보유」에서 1편 등 11편이 있으며, 타인이 굴정에게 준 글은 「당악문헌」에서 22편, 「하서집」에서 2편, 「놀재집」에서 2편, 「기재집」에서 1편, 「사재집」에서 2편, 「어촌집」에서 3편, 「호음잡고」에서 3편, 「석천집」에서 1편 등 36편이 있다.

5. 結 論

이상으로 윤구의 가계와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문집인 굴정유고 의 현존본과 내용을 분석하며, 「굴정유고」에 수록되지 않은 굴정에 관한 서지 등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尹衢(1495-1549)는 해남 윤씨 派始祖인 漁樵隱 尹孝貞의 맏아들로, 字는 亨仲이고 號는 橘亭이다.

- 2) 綽정은 해남 윤씨 가문에서 처음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정치가이며 학자이고 문장으로 명성이 드높았다.
- 3) 綽정의 문집인 「綽정유고」는 필사본 3종과 목활자본(「연방집」 중 권1), 국역본 「綽정선생유고」 등이 현존한다.
- 4) 「綽정유고」에는 33편의 글이 실려 있고, 문체의 종류는 시, 부, 논, 잠, 책, 묘갈명, 송, 잡저 등이 있다. 내용은 詩와 賻에서는 자연과 물건을 인생에 비유하여 수신, 덕, 절개를 중요시 하였는데, 이는 해남 윤씨의 家學인 「小學」정신과 일맥상통하며, 論에서는 漢高祖의 일관성 없는 인품과 왕이 된 후 교만해짐을 비판하고, 절의를 강조하는 綽정의 사고와 정치관을 엿볼 수 있다.
- 5) 「綽정유고」에 수록되지 않은 글을 조사한 결과, 綽정이 직접 지은 글로는 9편(행장 1편, 시 3편, 간찰 5편), 綽정에 관한 기록은 11편이 있으며, 타인이 綽정에게 준 글은 36편이 있다. 앞으로도 고전자료 중에서 綽정에 관한 서지가 더 조사되고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橘亭遺稿」.

「聯芳集」.

「棠岳文獻」.

「棠岳遺事」.

「朝鮮王朝實錄 中宗實錄」.

「河西全集」.

朴浩培·尹在振 譯. 橘亭先生遺稿. 海南尹氏漁樵隱派橘亭公系 宗中, 2005.

정구복·이해준 등.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집성-해남 윤씨편 해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해남문화원 편. 海南文獻集. 광주: 삼화문화사, 1989.

안승준. “16-18세기 海南 尹氏家門의 土地·奴婢所有實態와 經營: 海南尹兒古 文書를 中心으로.” 『淸溪史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1989. 12) 157-222.

박준규. “湖南詩壇의 人物과 그 特色.”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이원택. “孤山 尹善道 家門의 家系와 家學.”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제1책, 전라남도·문헌정보연구소, 2003, 15-32.

장춘석. “綠雨堂 所藏 『海南三綱錄』의 研究.”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제1책, 전라남도·문헌정보연구소, 2003, 157-178.

정운섭. “孤山 尹善道 家門의 實學的 性格.”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제1책, 전라남도·문헌정보연구소, 2003, 33-70.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minchu.or.kr>>.